현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Grotesque) 특성 연구 -Damien Hirst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희정[†] · 간호섭^{*}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 패션디자인과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in Contemporary Fashion Collection -Focus on Damien Hirst's Works-

Hee Jeong Park[†] · Ho-Sup Kan^{*}

Dept. of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Dept of Textile Art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접수일(2013년 1월 11일), 수정일(1차 : 2013년 2월 20일, 완료일 : 2013년 3월 6일), 게재확정일(2013년 3월 11일)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a new delivery method for designs as observed in the artwork trends of Damien Hirst and reflected in the unique expression methods of Modern fashion Collections. The study analyzed numerous resources (literature, dissertations, magazines, and the internet) about Damien Hirst and the examination of a modern fashion timeline is limited to after the 2000s. The 'grotesque trend' that appears in Damien Hirst's works can b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fragmented animal, mismatch, excessiveness and exaggeration, comedy and awfulness, and abnormality). Based on this, the study found that heterogeneous, abject abhorrence, double sided of the play, exaggerated atypia and devilishness in Modern fashion. This study suggests a positive direction for the 'grotesque technique' that could be recognized as one of the delivery methods for a unique fashion design based on the attachment of an aesthetic value that supersedes bizarreness and strangeness to expand various methods of expression.

Key words: Grotesque, Mismatch, Exaggeration, Heterogeneous, Satire; 그로테스크, 부조화, 과장, 이질성, 풍자

I. 서 론

패션과 예술은 한시대의 미적가치, 사회현상, 문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상호작용 속에서 디자인적, 예술적 영감을 교류해왔다. 예컨대, 1930년대 활약한 패션디자이너 Elsa Schiaparelli는 초현실주의 예술양식을 디자인에 응용하였고, Yves Saint Laurent은 드레스에 몬드리안 회화를 차용하였다. 이렇듯 예술과 패션은 서로 공생해 왔으며

특히 매 시즌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선보여야 되는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이러한 예술양식들은 창의적 디자인의 독특한 표현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표현방법들 중 그로테스크는 세기말 불안한 사회심리와 함께 19세기 말, 20세기에 특색한 사회현상으로 인간성 상실, 소외, 불안 등 과거에는 드러낼 수 없었던 잔인하고 파괴적인 인간 본능의 모습들을 과격하게 보여주었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예술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 창의성과 브랜드 가치를 대중들에게 색다른 방법으로 각인시키고자 비정상적이며, 충격적인 그로테스크한 표현 방법들이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시대에 빈번하게 표

[†]Corresponding author
E-mail: thegru@naver.com

현되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미술계에서는 적극 적용, 확대되어, 이와 관련한 연구와 논문이 다수인데 비해, 현대 패션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현대 패션에서의 선행연구는 20세기에 나타난 전반적인 패션 현상을 그로테스크한 현상으로 해석하여 분석한 연구(Choi, 1997; Choi & Yoo, 1998; Nam & Park, 2004)와 그로테스크한 표현특성으로 경계의 모호성과 신체의 폭력성으로 분석한 연구(Park, 2003), 학자들의 그로테스크 이론과 연관하여서는 가레스 퓨(Gareth Pugh) 컬렉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특성을 분석한 연구(S. Y. Kim, 2012),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작품의 그로테스크적 특성(Kim, 2008)이 있지만 그로테스크 대표 예술작가와 패션과 접목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미술계의 악동이라고 불리는 그로테스크 대표 작가 Damien Hirst의 작품과 현대 패션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첫째, Philip Thomson의 그로테스크 개념과 현대 미술계의 악동이라 불리는 Damien Hirst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특성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둘째, Damien Hirst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통해 현대 패션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로테스크의 가치를 정립하고 마지막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그로테스크의 독특한 표현방식이 새로운 디자인 전달방식으로 활용가능성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Damien Hirst에 관한 각종 문헌이나, 학위논문, 인터넷 등의 자료를 통해 그로테스크의 이론적 고찰과 작품세계를 분석하였다. Damien Hirst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는 YBA 작가로 활동한 시기부터 자연사시리즈(Natural series, 1991~1994), 약시리즈(Medicine series, 1988~2008), 스폿 페인팅(Spot painting, 1988~2012) 등의 작품을 웹사이트(www.damienhirst.com) 사진자료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현대 패션컬렉션의 사례분석으로는 2000 S/S 부터 2012 F/W까지의 프레타포르테(prêt-à-porter) 컬렉션 중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세계로 인정을 받고 있는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 발렌시아가(Balenciaga), 빅토 앤 롤프(Viktor & Rolf), 뮈글러(Mugler),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장폴고티에(J. P. Gaultier), 아카디우스(Arkadius), 콤데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패션 컬렉션 사진 자료는 화면상 부정확한 부분이나 디테일 컷에 있어서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 영국 보그(www.vogue.co.

uk)와 디자이너 홈페이지의 사진자료 460점을 통해 그로테스크의 표현특성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발생

그로테스크는 15세기 말 로마를 위시해 이탈리아 곳곳에서 발굴된 특정한 고대 장식미술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기원이 시작되었다. 이 용어는 처음에는 회화, 조각, 건축 등 조형예술영역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16세기부터 문학 등 미술 외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낭만주의 시대 이전까지는 자연적 질서의 파괴, 이질적 요소들의 기이한 결합, 현실을 벗어난 공상적 요소 등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데 그쳤다(Nam & Park, 2004). 그러나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로테스크의 내재된 웃음과 공포, 현실과 비현실의 결합이란 양면성을 지닌 그로테스크의 미학적 정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전개되었다(Shin, 1995). 그로테스크의 개념이 예술적 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1775년 Wieland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캐리커처(caricature)의 본질을 규명하는 가운데 그 이전까지 무늬 등의 장식술 측면에서만 제한되어 왔던 그로테스크의 개념을 보편적 예술적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미학적 범주로 끌어올렸다(Choi & Yoo, 1998). Viktor Hugo와 Chesterton은 그로테스크의 세계가 공상적인 친화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세계도 함께 뒤엎혀 있다고 보았으며, 휴고를 비롯한 James Ruskin의 작가는 공통적으로 그로테스크 속에 과장과 극도의 익살이 있음을 주장하였다(Choi & Yoo, 1998).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로테스크의 개념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독일의 비평가 W. Kayser는 그로테스크의 본질을 소외와 공포, 비극을 강조하는 정신 분석학적인 언캐니(uncanny)를 주장하였다(Kim, 2011). 이것은 물질적 신체, 이중적, 왜곡, 변형, 비친함을 주장하는 M. Bakhtin의 사회주의적인 카니발(Carnival) 그로테스크 이론, 이질적인 부분들이 새롭고 독자적인 단일체로 혼합되거나 융합되어 환멸을 느끼게 한다는 W. Thomsen의 그로테스크 이론과 상호보완적으로 전개된다(Kim, 1997).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그로테스크의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지만, 개념 자체가 혼란스럽고, 전체적인 구조를 밝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테스크의 특성에 대한 논의 또한 난해한 점들이 많다(Nam & Park, 2004). 따라서 그

로테스크의 의미 자체가 고정되고 안정되기보다 부단한 진행의 과정(Harpham, 1982) 그 개념들이 광범위하고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얹혀있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2. 그로테스크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20세기에 들어와 그로테스크의 정의를 새롭게 시도한 Thomson의 분류에 따라 그 특징을 네 가지로 분류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부조화이다. 그로테스크의 가장 유별난 특징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부조화라는 기본 요소이다. 이것은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혼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부조화가 예술작품 자체에서만 아니라 작품이 유발하는 반응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예술가의 창조적 기질과 심리적 구조 속에서도 발견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Philip, 1972/1986). 이러한 부조화의 특성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것들의 조합으로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 탄생과 죽음 등의 이중적인 분배의 표현으로 해석하게 된다. 둘째, 지나침과 과장이다. 그로테스크는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과장이나 극단적 요소로 표현되어진다고 여기며 이러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인해 그로테스크를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것으로 연관 지어본다(Philip, 1972/1986). 따라서 사실과 공상의 의식적인 뒤얹힘을 전제로 우리들에게 왜곡되고 과장된 공상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기존의 가치 질서를 위배하는 현실과 비현실의 뒤얹힘으로 기존의 질서가 위배되는 극단적인 과장으로 표현, 현대인들에게 낯설지만 신선한 충격을 전달하게 된다. 셋째,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혹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것이다. 이것은 양면성으로 과거에는 천박한 우스개 및 익살맞은 풍자와 같은 희극적인 것과 괴기와 신비, 심지어 초자연적인 영역으로까지 옮겨 놓는 끔찍스러운 것 혹은 골치 아픈 것으로 극단적인 분류를 취하였지만, 현대에 이르러 혼합형식을 띄게 되면서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내재한다는 것이 다른 문학적 양식이나 범주들과 구별지어주는 그로테스크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때 그로테스크의 웃음은 그 자체에 신랄함이 뒤섞여 있으며, 그것은 점차 경멸적이며 조롱적이고 마침내는 악마적인 웃음의 특성을 갖게 된다(Philip, 1972/1986). 이는 혼란하고 불안한 현실세계에 대한 조롱과 비판의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놀라움, 당혹감 또

는 공포감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비정상성이다. 비정상적인 것은 우스울 수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무섭다거나 역겨울 수도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과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으로부터 느끼는 재미는 일단 비정상성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친숙하지 못한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로 바뀐다. 또한 근본적인 비정상성과 그 비정상성이 표현되는 직접적이고 과격한 방식 때문에 저속하고 거칠며, 사실과 정상에 대한 모독이며 왜곡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Philip, 1972/1986). 이는 어두운 현실사회를 무질서하고 직설적이고 과격하게 표현함으로 충격적인 시각효과를 나타낸다 할 수 있으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게 된다.

III. 데미안 허스트

1.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세계

그로테스크의 대표 작가 Damien Hirst는 1965년 영국 골드스미스(Gold Smith) 대학출신으로 1988년 그룹전 <Freeze>로 미술계에 데뷔하였다. 미스터 테스, 악마의 자식, 무서운 아이, 켈트 조각가, 엽기의 예술가, 잔혹한 현대 작가 등으로 불리는 Damien는 YBA 작가그룹의 일원으로 활약하였고(Hong, 2011), 현재는 영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 <천년, A Thousand Year, 1990>을 사치가 구입하면서 작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1991년 그의 나이 불과 스물일곱에 유서 깊은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London)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1995년에는 런던 테이트갤러리(Tate Gallery)가 매년 최고의 작가에게 수여하는 터너상(Turner prize)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크게 소재와 표현에 있어 절단된 동물들이 포름알데히드 용액 속에 담긴 유리 케이스 작품, 수술도구나 약, 해부 모형이 진열된 의료 캐비닛 작품, 그리고 현란한 색채의 스폿 페인팅과 스핀 페인팅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겠다. 또한 최근에는 리바이스와 협업하여 그 활동영역을 패션에까지 넓히고 있다.

작품들은 대부분 삶과 죽음에 관한 성찰을 기존의 미학적 가치와는 동떨어진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드는 상어를 커다란 유리장에 가득담긴 포름알데히드에 넣어 전시한 <살아있는 이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신체적 죽음,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 1991>, 가죽을 벗긴 양의 머리 두 개를 각각 투명한 유리장 속 폼알데히드 용액에 담가 둘의 시선이 수직으로 교차하도록 배열한 <홍분제(그리고 그들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Stimulants(and the way they affect the mind and body, 1991> 이외에도 많은 작품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다. 수백 개의 담배꽂초를 거울과 스테인리스로 된 진열장 안에 촘촘히 나열한 <심연, The Abyss, 2008>, 같은 방식으로 수술도구들을 촘촘히 진열한 <침략, Invasion, 2009>, 해부학 모형을 크게 확대하여 채색한 브론즈<찬가, Hymn, 1999~2005> 등에서는 일상의 사물들을 이용하여 자연적이고 심미적인 의미의 '삶과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표상이 완전히 제거된 현대의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다룬다(Y. K. Kim, 2012)는 점을 알 수 있다. 작품들은 현대 산업사회가 대중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대리물에 연관되어 있다. Y. K. Kim(2012)에 따르면 폼알데히드 속의 상어를 대면한 관람자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은 미리 걱정해도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것임을 말하고, 시간이 흘러 썩거나 퇴색되는 것을 막아줄 것 같은 방부액과 약, 삶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담배, 영원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줄 것 같은 수술도구들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하였다.

Damien Hirst는 이처럼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동시대의 삶과 죽음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산업행위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약 시리즈는 약에 대한 현대인들의 기대와 그것의 종교적 성격을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소재와 표현에 있어 일상의 사물들을 차용해 변형을 최소화하고, 예술의 영역에 수용되기 어려웠던 '오브젝트(object: 역겹고 혐오스러운 소재를 이용하는 작품양식)'적 요소들을 작품에 도입(Hong, 2011)하며, 의학, 종교,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작품에 포함시킨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한 공간에 병치하는데, 이질적인 장르와 소재, 주제들이 한데 섞여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그의 작품은 고정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해석의 가능성으로 열려있다.

2. 데미안 허스트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Thomson의 그로테스크 특성을 바탕으로 Damien Hirst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이질적 부조화성, 오브젝트 혐오성, 과장된 비정형성, 악마성, 유희적 양면성으로 범주화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연관성은 <Table 1>과 같다.

1) 이질적 부조화성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의미를 정의할 때 이질적 부조화는 그로테스크의 가장 유별난 특징으로 갈등, 충돌, 이

Table 1. The relevancy of grotesque characteristics from Philip Thomson and Damien Hirst

Grotesque Characteristics (Philip Thomson)	Relevancy of expressions	Grotesque Characteristics from Damien Hirst's pieces
Mismatch - Conflict and clash of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Heterogeneous mismatch - the combination of organic and mechanic characteristics or religious and scientific material or methods, organisms and ordinary objects
Excessiveness and exaggeration - Extreme exaggeration outside the norm		Abject abhorrence - adoption of detested and disgusted materials
Comedy and awfulness - abhorrence and unpleasantness, contempt and ridicule, devilish laugh, and fear		Exaggerated atypia - distortion and exaggeration of the figure and installment
Abnormality - destruction of balance and the unnaturalness		Dimorphic euphoria - satire and reality Humor without the seriousness
		Devilishness - adopt the images of a fearful and shocking motif with the subject of death

질적인 것의 결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렇듯 갈등, 충돌 그리고 이질적인 것의 혼합,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혼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작품을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하는 것이 아닌 상반되고 이질적인 성향이 강한 소재 혹은 전혀 무관한 것들을 선택해 양분화시켜 낯설게 보이게 하고 당황스러움 내지는 끔찍한 자극을 받게 된다(Philip, 1972/1986). Damien Hirst의 작품 나타난 이질적 부조화는 주로 기계적인 것과 유기체적인 것의 결합, 과학적, 종교적인 소재와 방법과 유기체, 일상의 사물들의 결합 등을 통해 이질적 부조화를 나타낸다.

<Fig. 1>는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에 사치와 허영심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포장함으로써 욕망덩어리인 인간과 죽음의 상관관계를 해골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상반되고 이질적인 소재로 조망한 그로테스크를 제시한다. <Fig. 2>는 산부인과 진료실을 물고기가 해엄치는 수조로 만든 것으로, 진화의 초기 단계에 속하는 물고기는 태아로, 물은 양수로 볼 수 있다. 물고기는 남성의 성기와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자궁을 역경계 표현하는 ‘피쉬 버지니아(Fish Vagina)’라는 말을 연상시킨다(Yun, 2005)라고 설명한다. 이때 산부인과 진료실과 수술대, 수술기구와 장치들과 전혀 무관한 생물체인 열대어들의 결합으로 이질적인 것들의 부조화라는 그로테스크적인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약국, Pharmacy, 1992>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 있는 상업적 공간인 약국을 전시장에 설치하였다. 약장들을 벽면에 가득 채우고 약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운터를 한쪽에 배치, 천장에는 전기 살충기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생명을 죽이는 모순적인 구조물들을 설치함으로써 죽음에 대해 차갑고 냉소적인 그로테스크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Damien Hirst는 자신의 작업에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과학적, 종교적 소재와 방법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는데(Hong, 2011), 과학과 의학 기술을 이용한 여러 설치물들과 함께 ‘삶과 죽음’과 관련한 상황들을 표현함으로써 관람자들에게 마치 하나의 기계적인 설치 구조물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함으로 이질적이 그로테스크를 표현한다.

2) 오브젝트 혐오성

그로테스크에서 비정상적인 것은 우스울 수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무섭다거나 역겨울 수도 있다(Philip, 1972/1986)라고 하였다. 이처럼 희극적이면서도 끔찍한 감정과는 전혀 상반되는 양면성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그로테스크한 일그러뜨리기는 끔찍하고 우스울 뿐 아니라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혐오적이다. 이는 일반적인 미의 질서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기에 충격적인 시각효과를 전달한다. 특히 Damien Hirst의 작업에서는 오브젝트적 혐오를 나타내는데, 동물의 사체나 해부학적으로 절단한 유기물들, 해골, 담뱃재, 기생충, 피 등을 주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재에서 충격적이고 비정상적인 역겨움과 당혹감을 전달한다. 예컨대, 썩어가는 소의 머리를 유리 탱크에 넣은 <Fig. 3>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미니멀리즘 작품으로 볼 수 있으나, 유리 안에는 파리와 구더기, 죽은 소의 머리와 전기 살충기가 있는 평범하지 않은 광경이 놓여 있다. 한쪽 유리 케이스 안에 설치된 구멍이 뚫린 흰 상자 안에 있던 구더기가 파리가 되어 밖으로 날아다닌다. 유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 파리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쪽에는 썩어 가는 소의 머리와 설탕, 그리고 물이 놓여 있다. 파리는 이 먹이를 먹게 되고, 먹이 바로 위에 설치된 전기 살충기로

Fig. 1. For The Love of God. (2007).
From Damien.
(2012a). <http://www.damienhirst.com>

Fig. 2. Love Lost. (1999).
From Damien.
(2012b). <http://www.damienhirst.com>

Fig. 3. Thousand Years. (1990).
From Damien. (2012c).
<http://www.damienhirst.com>

Fig. 4. Mother and Child Divided. (1993).
From Damien. (2012d).
<http://www.damienhirst.com>

인해 죽게 된다(Sun, 2008). 이러한 표현방식은 기존의 미술로 수용하기에는 힘든 요소들로 관람자는 그의 작품 앞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바라보는 것처럼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불쾌하고 혐오스러움을 느낀다. <Fig. 4>에서는 임신기간과 출산의 합병증으로 죽은 소와 송아지로 만들어졌으며, 어머니와 아이, 인간과 동물, 예술과 현실 사이의 죽음, 고립, 분리를 주제로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해부학적으로 절단된 신체 조각들 사이로 내장이 드러난 광경은 죽음의 현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움직임 없이 수조에 담겨있음(Carrie, 2004)으로서 관람자들에게 당혹감과 함께 혐오감을 전달한다. 작품 <아마게돈, Armagaddon, 2002>는 원거리에서 작품을 응시할 때는 미니멀한 작품에 불과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것이 수백, 수천만의 파리들로 덮혀 있다는 것을 안 관람자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이제까지 미술의 재료로 수용되기 힘든 요소들을 죽음이라는 주제에 연결함으로 아브젝트에 대한 반응인 혐오감, 당혹감을 주는 그로테스크를 느끼게 된다.

3) 과장된 비정형성

그로테스크는 근본적인 비정상성과 그 비정상성이 표현되는 직접적이고 과격한 방식 때문에 저속하고 거칠고 쓸데없는 왜곡, 억지스럽고 무의미한 과장(Philip, 1972/1986)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상식을 벗어나 비정상적인 과장이나 극단적 요소로 표현되어진다(Lee, 1988)고 함은 비정형적인 즉 기괴한 형상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된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과장된 비정형성이라 할 수 있다.

Damien Hirst의 작품에는 초대형 설치물들이 많은데, 특히 가고시안 화랑의 중앙에 설치된 해부 모형<Fig. 5>는 거대한 토트 그 자체이다. 신체의 내부기관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 시절의 과학교육용 장난감 인체모형을 확대하여, 6톤에 달하는 브론즈로 만들어진 6미터 높이의 기념비적인 작품(Sun, 2008)에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낯설음으로 인하여 시각적 충격을 전달하게 된다. <Fig. 6>는 만삭의 임신부 신체를 절반만 해부하여 내장과 피부조직, 근육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채색된 브론즈만을 사용했는데, 알록달록한 색채들은 시각적으로 거대한 조각의 중량감을 덜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물과 같은 감각을 부여한다(Sun, 2008). 작품 <미스터 죽음, Mr. Death, 1996>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모두 12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1피트 간격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양 끝에 놓인 머리를 사이에 여덟 개의 다리를 놓는 구조로 위치전환하였다. 각각의 신체 조각들은 다른 작품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멀리서 관람할 때는 단순한 유리 상자의 배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로 다가갈수록 그것이 동물의 절단된 사체이고 2마리의 절단된 사체들의 배열이라는 것을 앞으로 그 시각적 충격은 더욱더 강하게 된다. 즉 2마리 소의 죽음을 비정상적으로 확장시켜 보여주는 그로테스크를 제시하였다.

4) 유희의 양면성

Philip(1972/1986)에 따르면 그로테스크의 희극적이며 끔찍스러운 것은 서로 혼합되어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뜻한다고 보았다. 웃게 되는 반응이라 함은 즐겁고 유쾌하기 때문에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가진 규제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현상 사이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양면성을 갖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스웁은 진지함의 결여가 특징으로 나타난다.

<Fig. 7>는 거대한 설치물이다. 부러진 다리, 헤진 옷, 자선모금상자를 들고 있는 누추한 소녀의 모습은 1950년대 영국에서 사용되었던 자선모금상자를 기반으로 하여 거대한 사이즈로 확대한 작품이다. 자선행위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을 풍자하고 회화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러한 장난감 모형도 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해야 할 미술계를 조롱하듯 Damien Hirst다운 유희가 담겨져 있다. 제목에서부터 허스트다운 유머가 전달되는 <Fig. 8>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마치 해부학 시간에서나 나올 법한 의학적 재료와 현대적 소재들로 재현한 작품으로 사지가 유리판으로 사등분된 채 공중을 떠도는 안구가 돌출된 해골은 죽음은 부정적 절하다고 외친다(Hong, 2011). 이 작품에서는 다소 진지한 주제인 종교와 죽음이라는 주제를 뼈대와 해골을 전구, 전기 장비들과 함께 설치돼 예수가 십자가의 매달림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다. <돼지 날다, Pigs might fly, 2008>는 날 수 없는 돼지에 날개를 달아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아 마치 돼지가 하늘을 날아 기뻐서 웃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면서 돼지의 사체는 죽음을 상징하는 끔찍한 것이지만 표현방법에 있어 진지함이 결여된 유머러스한 그로테스크를 보여준다.

5) 악마성

악마성은 그로테스크가 가진 특성 중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Damien Hirst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동물들을 단순히 원형 그대로 박제된 또는 해부학적으로 절단하는 방법을 통해 관람자들에게 인간 내면의 악마적인 본성을 파괴적, 공포스러운 방법으로 전달한다. 악마적 그로테스크는 오브젝트 혐오성과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소재에서 기인한다. 동물의 시체와 피, 구더기와 파리, 전기 살충기 등은 모두 생과사의 끔찍한 단면을 보여주는 소재들이다. 차갑고 깨끗한 육면체의 유리 진열장 안의 끔찍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기이한 광경은 전시장 혹은 유리 진열장이라는 제 3의 공간 속에서 가시화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장면 자체가 악마적이고 공포스럽다(Yun, 2005). 이러한 악마적 그로테스크의 방식은 허스트의 많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작업 방식이다. <Fig. 9>는 죽은 상어를 포름알데히드가 가득 담긴 유리 케이스 속에 넣고 모터를 연결하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하였다. 이 작품은 삶에 대한 욕망과 죽음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모순된 심리를 보여주며 차갑고 폭력적인 모양과는 대비되는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통해 풍자와 공포, 아름다움과 잔혹,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중구조를 반박할 여지없는 연극적인 감정의 동요로 만들어낸다(Sun, 2008). 그는 죽음과 그것에 이르는 고통에 대한 공포, 두려우면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관음증의 강한 충동을 매우 능숙하게 제시함으로써 악마적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다. <매튜, 마크, 루크 그리고 존, Matthew, Mark, Luk and John, 1994>는 네 개의 절단된 소의 머리에 수십 개의 칼이 꽂혀있는 모습만으로도 혐기적이지만 네 사람의 이름이

제목인 것으로 봐서 인간의 죽음에 관해 또 한 번 더 공포감을 자아내면서 죽음에 관한 관음증을 상기시킨다. Damien Hirst는 이와 같이 동물을 분해하고 해체하여 파편화시킴으로 동물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죽음을 투영함으로 다시금 악마성을 드러내고 있다.

IV. 현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데미안 허스트의 그로테스크 특성

오늘날 현대 패션은 전통적인 미의식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과 표현방식을 향한 시도는 과학, 예술, 건축 등의 다른 영역과의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서로 융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실험적이고 보다 파격적인 것을 추구하는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하게 응용되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현대 미술가 Damien Hirst의 작품 속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이질성, 혐오성, 비정형성, 유희적 양면성, 악마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그 표현방법과 내적의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이질성

갈등과 충돌 그리고 이질적인 것의 혼합은 창조의 근간이며, 이것을 그로테스크를 여타의 고상스러운 것과 구별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것이기도 하다(Choi & Yoo, 1998). 이러한 특성은 성질이 다른 소재의 결합, 인간과 동물의 결합된 원시적인 형태와 인간과 기계적인 것의

Fig. 5. The Virgin Mother. (2005).

From Damien. (2012e). <http://www.damienhirst.com>

Fig. 6. Hymn. (2008).

From Damien. (2012f). <http://www.damienhirst.com>

Fig. 7. Charity. (2002).

From Damien. (2012g). <http://www.damienhirst.com>

Fig. 8. Resurrection. (1998).

From Damien. (2012h). <http://www.damienhirst.com>

Fig. 9.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 Loving. (1991).

From Damien. (2012i). <http://www.damienhirst.com>

결합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의 조합인 이질성으로 표현되는데, Damien Hirst의 경우 주로 과학적 설치물들을 작업에 많이 응용하였는데, 죽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소재에 있어 이질적 요소의 기계들을 함께 설치하면서 주제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작품 곳곳에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패션에서도 이질적 소재의 하이테크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하이테크는 자연 지향과는 반대로 인공 지향적이며 미래감을 지닌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21세기 패션 디자인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것, 인공적인 것, 기계적이고 도시적인 것으로 차갑고 딱딱한 느낌의 인위적인 메카닉으로(Lee, 2000) 낯설게 보임으로써 당혹스러움을 전달하는 그로테스크라 할 수 있다. 예컨대 Hussein Chalayan은 <Fig. 10>에서는 레이저 드레스로 LED를 이용해 의상의 질감, 프린트, 컬러의 개념을 변화, 빛을 의상에 끌어들이는 첨단 테크놀러지의 기계적인 요소들이 도입하여 반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Balenciaga는 <Fig. 11>에서 우주 비행사의 고글 같은 선글라스, 인체 공학적 절개라인과 메탈릭 소재의 레깅스는 로봇다리를 연상시키며 사이버그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Kim, 2011). <Fig. 12> 패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 트랙과 조명을 장착한 버팀목을 달고 나와 하나의 설치 미술이나 퍼포먼스 형태로 표현한다. 패션을 단순히 착용과 치장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과학적 설치물들로 인해 시각적 유희뿐만 아니라 동적이고 미래적인 아이디어의 표현수단으로 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Mugler는 <Fig. 13>에서 비일상적 소재인 고무를 이용, 디자인하여 기형적인 실루엣을 연출하였고, 부자연스런 상의에 비해 하의는 일반적

인 패브릭 스커트로 상하가 이질적인 그로테스크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디자인요소의 결합, 이질적 소재의 결합,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소외되고 억압된 것들에 대한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2. 혐오성

혐오성은 그로테스크가 탐닉하고 있는 부분을 극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는 혐오스러운 것, 불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성은 금기적이며 괴기한 이미지, 상충적 이미지를 가진 디자인 요소의 결합, 자기 손상 이미지 등 파괴적, 공포적, 정신분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이를 통하여 강인성, 해방성, 전복성, 충격 등을 표현하여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미적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Nam & Park, 2004). Damien Hirst의 작품 속에 나타난 혐오성은 역겹고 혐오스런 소재와 기법을 사용한 오브젝트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현대 패션에서는 혐오스런 오브제, 신체의 물리적 파괴, 신체의 해부학적 표현, 노골적 성적 표현으로 환멸감과 불쾌함을 유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혼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암시하는 것이며 인간존재 속에 밖으로 들어내기를 꺼려하는 금기에 대한 자기고백이라 할 수 있다(Kim, 2008).

Alexander McQueen은 <Fig. 14>에서 투우사들이 황소를 찌를 때 사용하는 창이 몸을 관통한 것처럼 보이는 드레스를 연출해 현대 사회의 혼란과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암시함과 동시에 파괴적인 그만의 창의성을 신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함으로 보여주었다(Kim, 2008). <Fig. 15>에서 돼지형상의

Fig. 10. Hussein Chalayan. 2008 S/S.
From 2008 S/S Hussein Chalayan. (2012).
<http://www.vogue.co.uk>

Fig. 11. Balenciaga. 2007 S/S.
From 2007 S/S Balenciaga. (2012).
<http://www.vogue.co.uk>

Fig. 12. Viktor & Rolf. 2007 F/W.
From 2007 F/W Viktor & Rolf. (2012).
<http://www.vogue.co.uk>

Fig. 13. Thierry Mugler. 2011 F/W.
From 2011 F/W Thierry Mugler. (2012a).
<http://www.vogue.co.uk>

마스크를 쓴 나체의 중년 여성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 사이에 수많은 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고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방들이 여인의 몸을 뒤덮고 있는 혐오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아름다움에 관한 사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Kim, 2008). <Fig. 16>-<Fig. 17>에서는 미개 종족의 신체 특징을 이용한 액세서리, 문신, 장식 등을 사용함으로 혐오감을 주며 신체를 훼손시킨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Fig. 18>에서는 뒤집어진 스커트와 성기부위를 검정으로 표시한 반나체의 모델을 통해 금기시되었던 섹슈얼리티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혐오감을 주는 표현들은 잔혹성, 분열성, 섹슈얼리티의 불안정성과 함께 자기 증오, 공포, 분노, 좌절, 고통 등을 투사하여 그로테스크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금기시되었던 비천함을 고무하여 카타르시스, 쇼크효과와 함께 혐오감을 제공한다(Nam & Park, 2004). 이러한 표현형태들은 인간 내면에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성이 있지만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심리에 대한 자기 고백의 표현과 같은 것이다.

3. 비정형성

Damien Hirst의 작품에 나타난 비정형성은 대형으로 설치물이나 공간의 확장을 통해 극단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대 패션에서는 왜곡되고 과장된 디자인이나 실루엣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상식을 벗어나 기존 의복의 형태를 왜곡하거나 과장시켜 인체의 일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나타내거나 기괴한 형상으로 표현된 인체에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의복을 통해서든 신체 자체를 변형하거나 왜곡시킴으로 시각적 충격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체나 의복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개선하고자하는 동시에 의복과 신체의 일탈을 통해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아이러니한 쾌감까지도 갖게 하는 비정형적인 그로테스크함을 표현한다.

<Fig. 19>는 상식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거대한 볼륨 의상으로 풍선처럼 부풀려 인체의 형상을 왜곡시켜 기형적으로 나타내거나 <Fig. 20>에서처럼 2차원의 종이 옷 같은 옷을 통해 기형적으로 실루엣을 과장시킴으로 인해 유희적인 왜곡과 과장의 그로테스크를 나타낸다. <Fig. 21>-<Fig. 22>에서는 의복구성을 무시하여 V-zone 부분과 소매 부분을 여러 겹 겹쳐 입은 것처럼 연출, 인체의 일부분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확장함으로 기형적인 실루엣을 시도하였다. 또한 반복된 소매와 칼라로 인한 형태의 기괴한 인체 모습을 표현한다. 이러한 의복구성에 있어 뒤틀리고 일그러져 보이는 기괴한 신체가 제시하는 것은 전통적 시각으로 보는 미학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인체 부분의 비정상적인 과장과 변형, 왜곡을 통해 기괴한 그로테스크의 다른 측면이 만들게 된다.

4. 유희적 양면성

그로테스크의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면은 패션에서 극단적인 현실요소를 통해 풍자적이고 조소에 찬 해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익숙하지 못했던 현실의 숨겨진 이면을 충격적으로 제시함으로 현실의 숨겨진 희극성은 카타르시스를 유도한다. 이것은 일종의 왜곡된

Fig. 14. Alexander McQueen. 2000 S/S.
From 2000 S/S
Alexander McQueen.
(2012a). <http://www.alexandermcqueen.co.uk>

Fig. 15. Alexander McQueen. 2001 S/S.
From 2001 S/S
Alexander McQueen.
(2012a). <http://www.vogue.co.uk>

Fig. 16. Alexander McQueen. 2001 S/S.
From 2001 S/S
Alexander McQueen.
(2012b). <http://www.vogue.co.uk>

Fig. 17. Jean Paul Gaultier. 2002 S/S.
From 2002 S/S
Jean Paul Gaultier.
(2012). <http://www.vogue.co.uk>

Fig. 18. Arkadius. 2001 F/W.
From 2001 F/W
Arkadius. (2012).
<http://www.vogue.co.uk>

Fig. 19. Comme Des Garçons. 2010 F/W.
From 2010 F/W Comme Des Garçons. (2012).
<http://www.vogue.co.uk>

Fig. 20. Comme Des Garçons. 2012 F/W.
From 2012 F/W Comme Des Garçons. (2012).
<http://www.vogue.co.uk>

Fig. 21. Viktor & Rolf. 2003 F/W.
From 2003 F/W Viktor & Rolf. (2012).
<http://www.vogue.co.uk>

Fig. 22. Viktor & Rolf. 2011 S/S.
From 2011 S/S Viktor & Rolf. (2012).
<http://www.vogue.co.uk>

유희이며 상호모순되는 이질적인 결합으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을 벗어난 부정적이 의미를 내포한다 하겠다. 또한 엄숙한 대상의 허위와 거짓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내어 노골적으로 폭로하고 비판하기 위해 그 대상을 회화시켜 비평적으로 재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Damien Hirst의 작품 속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통해 죽음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삶과 죽음 또는 출생과 죽음, 인간의 심리와 모순된 욕망 등 하나의 주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항의 것까지도 표현하고자 하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는 주로 사회문제 전반적인 것을 풍자함으로써 시대고발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풍자하고 싶었던 Viktor & Rolf는 <Fig. 23>에서 자켓이 바지가 되고 바지가 자켓이 된 슈트로 세상을 회화적으로 풍자하였다. <Fig. 24>~<Fig. 25>에서 Alexander McQueen은 ‘20세기의 Landmark Fashion’을 풍자하였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의상 중 사넬을 상징하는 트위드 소재를 패러디함과 동시에 쓰레기 또는 비닐로 만들어진 옷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고가의 브랜드 의상들과 소비주의적인 20세기 말의 고위층들의 모습을 광대 분장을 한 모델들을 통해 풍자하고 싶었다고 한다. <Fig. 26>에서 Viktor & Rolf는 “No”라는 글자가 입체적으로 표현된 코트는 짧은 시간 안에 창조적 아이디어를 강요하는 패션계의 현실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모순에 의한 이질적 결합에 의한 결과물로 사회문제를 풍자하는 부정적 유희의 감정을 나타내고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조화로운 비율이나

리듬의 경계를 벗어난 형상은 관찰자에게 기이함과 공포의 전율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억지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그로테스크의 특성으로 충격적 결과를 양상한다 (Kim, 2008). 현대 패션에서는 주로 위치전환이나, 극단적인 과장, 상징적 문자 등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는 함으로 그로테스크의 재미를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5. 악마성

악은 기존 문화 바깥에 침묵하고 있었던 우리 문화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과 비정상, 성과 악, 이성과 본능 등의 이원론적 범주에서 부정적인 용어로만 개념화 할 수 있었던 악은 필연적으로 문화의 표면에 떠오를 회귀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Kim, 2008). 문화적 불안이 가장 잘 표명되는 것은 악마가 등장하는 대중문화 속에서 악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인간은 선이고 괴물은 악으로 대변되며, 악마를 통해 시대적, 사회적 부조리와 불안을 표현하고 또 인간 삶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비주얼 이미지는 악마, 해골, 피, 십자가, 죽음 등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파괴적이고 괴기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악마성은 인간 내면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인 죽음의 본능과 세기말 현상을 배경으로 Damien Hirst의 작품에서는 충격적 소재나 잔인한 표현방식에서 악마성이 기인하였는데, 패션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섬뜩한 오브제나 괴기스러운 악마적 모티프(마녀, 사탄, 드라큘라, 해골, 피, 문신 등), 고스룩 등으로 충격적, 파괴적, 잔혹함, 공포감을 조

Fig. 23. Viktor & Rolf.
2006 S/S.

From 2006 S/S
Viktor & Rolf. (2012).
<http://www.vogue.co.uk>

Fig. 24. Alexander McQueen.
2009 F/W.
From 2009 F/W Alexander McQueen. (2012a).
<http://www.vogue.co.uk>

Fig. 25. Alexander McQueen.
2009 F/W.
From 2009 F/W Alexander McQueen. (2012b).
<http://www.vogue.co.uk>

Fig. 26. Viktor & Rolf.
2008 F/W.
From 2008 F/W
Viktor & Rolf. (2012).
<http://www.vogue.co.uk>

성한다. 이러한 악마적이고 공포적인 패션이미지는 <Fig. 27>~<Fig. 28>에서는 창백한 피부에 피를 흘리는 듯한 피에로 분장으로 유희적이면서도 동시에 공포스러운 악마적 이미지를 표현되었다. 특히, 피를 나타내는 붉은색과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색채는 부정적 표현을 대표하게 되는데 어둠과 관련된 검은색을 사용하여 마귀나 요술사 또는 사탄의 섬뜩하고 괴이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효과 있게 표현하고 슬픔, 울음, 비참함, 죽음, 타락, 애도 등을 상징하는 것이다. Mugler는 <Fig. 29>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듯한 어두운 색의 옷과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문신이 마치 악마의 사도가 현대인으로 환생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Alexander McQueen은 <Fig. 30>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겹겹의 아름다운 빈티지 레이스로 장식된 크림색의 웨딩드레스와 머리 위

의 사슴뿔 장식을 담은 실크 망사베일은 유령 신부의 이미지로 디자인된 것으로 섬뜩함을 느낄 수 있다(Kim, 2008). <Fig. 31>은 마치 허공을 떠도는 유령의 모습처럼 암울하면서 죽음을 상징하는 공포스런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처럼 복식에서 악마성을 표현하는 그로테스크는 섬뜩한 오브제나 문신, 죽음을 상징하는 모티브를 사용하여 인간 내면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인 죽음의 본능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회적 위기의식, 좌절감 등 허무주의 의식과 행동으로 맞물려 병적인 마음이 일그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인간 내면에 대한 참뜻을 찾고자 하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데미안 허스트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과 연관하여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Fig. 27. Gareth Pugh.
2008 F/W.
From 2008 F/W
Gareth Pugh.
(2012a). <http://www.vogue.co.uk>

Fig. 28. Gareth Pugh.
2008 F/W.
From 2008 F/W
Gareth Pugh.
(2012b). <http://www.vogue.co.uk>

Fig. 29. Thierry Mugler.
2011 F/W.
From 2011 F/W
Thierry Mugler.
(2012b). <http://www.vogue.co.uk>

Fig. 30. Alexander McQueen.
2006 F/W.
From 2006 F/W
Alexander McQueen.
(2012). <http://www.vogue.co.uk>

Fig. 31. Alexander McQueen.
2000 S/S.
From 2000 S/S
Alexander McQueen.
(2012b). <http://www.alexandermcqueen.co.uk>

Table 2. The relevancy of grotesque characteristics from modern fashion and Damien Hirst

Damien Hirst	Modern fashion	Expression	Inner meaning
Heterogeneous mismatch	Heterogeneity	- Combination of opposing design factors - Use unusual fabrics for clothing	Recovery of human subjectivity Isolated world expressed with a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material
Object abhorrence	Abhorrence	Abhorrent object Deformed body parts and body damage Anatomical expression of the inside of the body	Destructive human nature
Double sided of the play	Satire as a play	- Location conversed, extreme exaggeration, Adopted symbolic characters and motif	Satirizing reality
Exaggerated atypia	Atypia	- distortion and exaggeration of clothing composition - extremely exaggerated and unembellished body parts - random combination of designs	Destruction of conventional conception of beauty Distorted physical beauty
Devilishness	Devilishness	- adopting death and a devilish object - expression of death, devilish colors and tone	A sense of social crisis, despair, emptiness, inhumane nature

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전통적 미의식의 절대가치 붕괴, 사회환경의 불안요소와 함께 득세하여 나타난 그로테스크 예술양식은 매 시즌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선보여야 되는 패션디자이너들에게는 훌륭한 디자인의 영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그로테스크 예술양식과 현대 패션의 연관성에 주목하였고, 그 표현특성과 연관성을 찾기 위해 먼저 Thomson의 네 가지 그로테스크 개념과 Damien Hirst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특성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Damien Hirst 작품의 그로테스크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현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은 이질성, 혐오성, 비정형성, 유희적 양면성, 악마성으로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질성은 이질적인 디자인 요소의 결합이나 성질이 다른 소재의 결합을 말한다. 하이테크 기계의 이미지, 사이보그의 형태, 라텍스, 고무, 비닐, 나무 등 비상적인 소재를 통해 이질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이질성은 생명의 가치 하락, 인간 주체의 회복이나 인간 소외현상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게 되었다.

둘째, 혐오성은 패션에서 혐오스런 오브제, 신체의 물리적 파괴, 신체 내부의 해부학적 표현, 신체 일부의 노출적 표현, 성적 표현으로 환멸감과 불쾌함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은 공포, 분노, 좌절, 고통 등 인간 내면의 파괴적인 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비정형성은 상식을 벗어나 기존 의복의 형태를 왜곡하거나 과장을 통해 나타나는데, 신체를 부풀린다거나, 의복구성을 전체나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은 기존의 미의식의 파괴와 왜곡된 신체미의 표현이라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유희적 양면성은 상호모순과 풍자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를 고발하거나 부정적 유희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 패션에서는 주로 위치전환이나, 의복구성의 극단적인 과장, 상징적 문자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를 풍자하는 함으로 그로테스크의 재미를 표현하였다.

다섯째, 악마성은 인간 내면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인 죽음의 본능과 세기말 현상을 배경으로 복식에서도 죽음을 상징하는 섬뜩한 오브제나 괴기스러운 악마적 모티프를 사용하여 충격적, 파괴적, 잔혹함, 공포감을 조성한다. 섬뜩한 오브제, 해골, 피, 문신, 악마, 피어싱 등의 악마적 모티프로 반영된다. 이는 일그러진 현대 사회의 고발로 위기의식, 좌절감, 허무주의, 비인간적인 인간 내면에 대한 근원적 불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Damien Hirst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그로테스크 특성들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계에 독창적인 영감을 제공하며 독특한 패션디자인의 감성을 각인시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 인간 내면의 파괴적인 본능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이 단순히 부정적 의미인 혐오스럽고 파괴적인 성질을 지닌다는 해석에서 벗어나 그 이상의 미학적 가치를 부여, 다양한 표현방법의 확장, 독창적인 패션디자인 전달방법의 하나로 인식하고자 하는데 긍정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한다. 단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 분석에 있어서 디자인 표현방법이나 전달방법에 있어 시각적 전달력이 강한 패션디자이너들의 컬렉션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사례분석의 연구범위 확대와 다양한 접근방식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References

- Carrie, W. (2004). *In the realm of the senseless. In-A-Gadda-Da-Vida*. London: Tate Britain.
- Choi, J. H. (1997). *A study on the grotesque in modern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buk University, Daegu.
- Choi, J. H., & Yoo, Y. S. (1998). The grotesque fashion in modern fash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s*, 40, 151-170.
- Damien, H. (2012a, October 21). For The Love of God in 2007. *Damien Hirst*. Retrieved October 21, 2012, from <http://www.damienhirst.com/for-the-love-of-good>
- Damien, H. (2012b, October 21). Love lost in 1999. *Damien Hirst*. Retrieved October 21, 2012, from <http://www.damienhirst.com/love-lost>
- Damien, H. (2012c, October 21). Thousand years in 1990. *Damien Hirst*. Retrieved October 21, 2012, from <http://www.damienhirst.com/a-thousand-years>
- Damien, H. (2012d, October 21). Mother and child divided in 1993. *Damien Hirst*. Retrieved October 21, 2012, from <http://www.damienhirst.com/mother-and-child-divided-1>
- Damien, H. (2012e, October 21). The virgin mother in 2005. *Damien Hirst*. Retrieved October 21, 2012, from <http://www.damienhirst.com/the-virgin-mother>
- Damien, H. (2012f, October 21). Hymn in 2008. *Damien Hirst*. Retrieved October 21, 2012, from <http://www.damienhirst.com/hymn>
- Damien, H. (2012g, October 21). Charity in 2002. *Damien Hirst*. Retrieved October 21, 2012, from <http://www.damienhirst.com/charity>
- Damien, H. (2012h, October 21). Resurrection in 1998. *Damien Hirst*. Retrieved October 21, 2012, from <http://www.damienhirst.com/resurrection>
- Damien, H. (2012i, October 21).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 loving in 1991. *Damien Hirst*. Retrieved October 21, 2012, from <http://www.damienhirst.com/the-physical-impossibility-of>
- Harpham, G. G. (1982). *On the grotesque: Strategies of contradiction in art and litera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 Hong, J. H. (2011). *The aesthetics of loss in Damien Hirst's 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H. (1997). *미국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연구: 나르시즘과 그로테스크를 중심으로* [A study on art in American feminist video art with emphasis on narcissism and the grotesqu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P. (2011). *Futurism expressed in fashion of 21st centu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S. Y. (2008). The grotesque in the work of Alexander McQue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8), 106-119.
- Kim, S. Y. (2012). Grotesque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Gareth Pugh Coll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2(4), 1-15.
- Kim, Y. Y. (2012). *Study of Damien Hirst's medicine ser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Seoul.
- Lee, H. L. (1988). *Thomas Mann의 초기단편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현상* [A study on the grotesque in the earliest no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Lee, H. Y. (2000). *The 21st century fashion information*. Seoul: Iljinsa.
- Nam, M. H., & Park, M. H. (200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in contemporary fashion-Focused on since the 199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8), 147-162.
- Park, E. K. (2003).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images in fashion: Focused on the postmodern grotesqu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0), 85-100.
- Philip, T. (1986). *Grotesque* (Y. M. Choi, Trans.). Seoul: Seoul University.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 Shin, C. K. (1995). *뒤렌마트 희극의 극본구조로서의 그로테스크* [A study on Derrenmatts' grotesque of a comedy struc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gang Unievrsity, Seoul.
- Sun, Y. R. (2008).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ody image expressed in British contemporary art : Focused on the works of young British artis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Yun, N. J. (2005). *현대미술의 풍경* [View of modern art]. Seoul: Hangil-art.

- 2000 S/S Alexander McQueen. (2012a, October 23). *ALEXANDER MCQUEEN*.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alexandermcqueen.co.uk/alexandermcqueen/experience/archive/AAB,en_GB,sf.html
- 2000 S/S Alexander McQueen. (2012b, October 23). *ALEXANDER MCQUEEN*.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alexandermcqueen.co.uk/alexandermcqueen/experience/archive/AAB,en_GB,sf.html
- 2001 F/W Alrkadius.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01/ready-to-wear/alkadius#-arkadius/full-length-photos/gallery/46935>
- 2001 S/S Alexander McQueen. (2012a, October 23). *ALEXANDER MCQUEEN*.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alexandermcqueen.co.uk/alexandermcqueen/experience/archive/AAB,en_GB,sf.html
- 2001 S/S Alexander McQueen. (2012b, October 23). *ALEXANDER MCQUEEN*.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alexandermcqueen.co.uk/alexandermcqueen/experience/archive/AAB,en_GB,sf.html
- 2001 S/S Jean Paul Gaultier.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1/ready-to-wear/jean-paul-gaultier#jean-paul-gaultier/full-length-photos/gallery/44891>
- 2003 F/W Viktor & Rolf.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e-winter-2003/ready-to-wear/viktor-and-rolf/full-length-photos/gallery/21862>
- 2006 F/W Alexander McQueen.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06/ready-to-wear/alexander-mcqueen/full-length-photos/gallery/170145>
- 2006 S/S Viktor & Rolf.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6/ready-to-wear/viktor-and-rolf/full-length-photos/gallery/143381>
- 2007 F/W Viktor & Rolf.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e-winter-2007/ready-to-wear/viktor-and-rolf/full-length-photos/gallery/22275>
- 2007 S/S Balenciaga.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7/ready-to-wear/balenciaga/full-length-photos/gallery/197228>
- 2008 F/W Viktor & Rolf.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08/ready-to-wear/balenciaga>
- 2008 S/S Hussein Chalayan.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8/ready-to-wear/hussein-chalayan/full-length-photos/gallery/259644>
- 2009 F/W Alexander McQueen. (2012a,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09/ready-to-wear/alexander-mcqueen/full-length-photos/gallery/369863>
- 2009 F/W Alexander McQueen. (2012b,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09/ready-to-wear/alexander-mcqueen/full-length-photos/gallery/369839>
- 2009 S/S Gareth Pugh. (2012a,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8/ready-to-wear/gareth-pugh/full-length-photos/gallery/283081>
- 2009 S/S Gareth Pugh. (2012b,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9/ready-to-wear/gareth-pugh/full-length-photos/gallery/28303>
- 2010 F/W Comme Des Garçons.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0/ready-to-wear/comme-des-garcons/full-length-photos/gallery/473380>
- 2011 S/S Viktor & Rolf.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1/ready-to-wear/viktor-and-rolf/full-length-photos/gallery/541977>
- 2011 F/W Thierry Mugler. (2012a,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1/ready-to-wear/mugler/full-length-photos/gallery/600703>
- 2011 F/W Thierry Mugler. (2012b,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1/ready-to-wear/mugler/full-length-photos/gallery/600687>
- 2012 F/W Comme Des Garçons. (2012, October 23). *VOGUE BRITISH*. Retrieved October 23, 2012,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2/ready-to-wear/comme-des-garcons/full-length-photos/gallery/760854>